"한일관계 새로운 대안은 지역간 협력"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 인터뷰

"(최근 과거사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정부 인사가 아닌 야당 소속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과거 내각도, 지금의 내각도 반성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벳쇼 고로(別所浩郞·60·사진) 주일대사는 3일 오후 광주일보사를 방문해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과거사 발언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던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 1998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 공동성명 등을 언급하며, 역사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를 의식한 듯 "선배들의 지혜를 기반으로 미래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취임한 그가 광주를 처음 방문해 제시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대안은 지역 간 협력 체계 구축이었다. 현재 한국과 일본 각 지역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서로 필요로 하는 것을 교류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밑바닥을 다져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고립돼 있던) 센다이를 도운 광주시와 시민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센다이의 경제교류가 10년을 맞았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나가사키현이 서울에 한국사무실을 개소하는 등 지역 간 교류는 매년 140차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 관계는 지역 중심 교류가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일관계'에 대한 강연에 나선 그는 "한일 미래 관계는 이제 젊은이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며 "젊은이들이 직접 상대국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벳쇼 주일대사는 도쿄대 법대 출신으로, 1975년 외무성에 입성한 뒤 2001년 고이즈미 내각총리대신 비서관, 2008년 종합외교정책국장, 2010년 정무담당 외무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이날 촉박한 일정 탓에 예약도 없이 광주시내 한 허름한 식당을 찾아 비빔밥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걸어서 인터뷰 장소인 광주일보사를 찾을 정도로 소탈한 성품을 지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철저 수사할 것"

광주 방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3일 광주를 방문해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와 법적인 절차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지검을 찾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수사중인 검찰과의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지금도 수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상적인 업무보고가 진행됐고 수사 진행과정, 협의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황 장관은 "개인 판단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은 최근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중간보고를 했으나 채동욱 검찰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황 장관은 선거법 위반 혐의의 법리 검토를 다시 해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황 장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시효와 관련해서는 "추징금 징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효가 만료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범법행위에 연루된 돈을 반드시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쇄신 방안에 대해서는 "외부에 의한 개혁방안은 단기적이며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며 "법·제도적인 측면보다 검찰 구성원의 사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관계 기관 간담회 등을 갖고 검사·직원들을 격려한 뒤 이날 오후 늦게 상경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사진=최현배기자 choi@

'박근혜 복심' 이정현 구원등판

'불통' 비판 속 靑홍보라인 총괄

수평이동 '인재풀 협소' 지적도

'박근혜의 입', '박근혜의 복심'으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석인 홍보수석으로 3일 수평이동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임명한 김병호 대선캠프 공보단장의 활동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자,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전격적으로 공보단장으로 임명된데 이은 두 번째 '구원 등판'이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정무수석 역할을 해온 이 수석의 홍보라인 투입은 이 수석 개인적으로는 달가운 상황이 아니지만 박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불통' 이미지를 얻게 된 데에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됐지만, '이남기 홍보수석-윤창중 대변인'으로 이어지는 홍보라인의 '역할 부재'도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적극적이고 박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이정현 수석이 후임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관측은 있었으나 정무수석으로서 업무를 잘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하는 분위기였다.

최종적으로 몇몇 신문, 방송 출신들과 대선캠프 공보위에서 활동한 인사들의 명단이 박 대통령에게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박 대통령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이 수석을 홍보책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홍보라인'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새 인물을 수혈하지 못하고 이 수석을 수평 이동시킨 데 대해 "쓴 사람만 계속해서 쓴다"는 지적과 함께 '인재풀 협소'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 수석은 이날 임명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희가 아는 것을 전달하는 홍보가 아니라 국민이나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에 대해 의견을 들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며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 철학과 국민에게 전달하고픈 메시지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그 진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자들이 묻기 전에 먼저 찾아와 심부름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 홍보팀은 가끔 불가피하게 '잘 모르겠다',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면 모른다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을 운영하는 배경이나 취지, 의도 등을 가급적 대변인을 통해 여러분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수석의 임명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임자라는 평가를 했고, 민주당도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는 등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우호적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K, 박근혜 정부의 '성골'

고위공무원의 20% 넘어 … 3명 중 1명이 영남

민주 민병두 의원 분석 … 광주·전남은 13.8%

박근혜 정부의 고위 공무원단 3명 가운데 한 명은 영남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편중 인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 17개 부의 가급과 나급 고위공무원단(567명) 중 출신지역이 파악된 421명 가운데, 영남권 출신 인사 비중이 전체의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남 중에서도 대구·경북(TK)지역 인사들의 비중이 20.4%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부산·울산·경남(PK)지역 인사 비율은 16.2%로 뒤를 이었다.

서울지역과 광주·전남지역 인사 비중이 각각 15.0%, 13.8%로 3, 4위를 각각 차지했고, 대전·충남(9.7%), 전북(7.4%), 강원(6.2%), 충북(5.7%), 인천·경기(5.0%), 제주(0.7%) 순이었다. 하지만, 567명 가운데 146명의 출신지역은 파악되지 않아 분석 결과와 실제 출신지역별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567명의 고위공무원단 가운데 수도권 대학 출신은 467명으로 82.4%를 차지한 반면, 지방대학 출신은 95명으로 16.8%에 그쳤다. 특히 서울대(29.1%) 연세대(9.2%) 고려대(8.5%)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절반에 가까운 46.7%에 달했다. 전남대가 호남지역 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전체 순위 20위 안인 9위(14명)를 차지했다.

반면 영남지역 지방대에서는 경북대 10위(13명), 영남대 11위(10명), 부산대·부산수산대 14위(7명), 동아대 20위(5명) 등 호남의 3배나 되는 42명의 고위공무원을 배출했다.

출신 고교별로는 경북고(14명) 대전고(13명) 경기고·순천고(각각 11명), 서울고·청주고·검정고시(각각 10명) 순이었다. 또 광주일고는 9명으로 춘천고와 공동 8위, 광주고는 8명으로 전주·대구·신일고와 함께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남성이 538명으로 94.9%에 달했고, 여성은 29명으로 5.1%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462명의 출신지 현황과 비교할 때 순위와 비율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 대탕평'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제3공화국 때부터 심화된 지역편중 인사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주중 결론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선 6개월 후인 오는 19일이다. 시효 전까지 수사를 끝내야 하므로 구속 기간(1회 10일에 1차례 연장 가능)을 감안하면 이번주 중에는 청구 여부를 결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는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악습을 끊으려면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반면 검찰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는 공안 사건인데다 선거법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안인 점에서 일반 형사 사건이나 특수 사건과 달리 정밀한 법리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연합뉴스

'메뚜기도 한철' 이젠 옛말

도농기원, 연중 사육기술 개발

사계절 메뚜기 사육 기술이 개발돼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이 이젠 옛말이 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는 3일 "식용과 사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벼메뚜기를 연중 사육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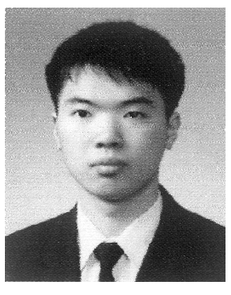
벼메뚜기는 한방약재, 강장 식품과 조류, 파충류 등 애완동물의 고단백질 사료로 이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농가의 틈새 소득작목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소는 이번에 산란한 알을 초가을이나 이듬해 3월에 조기 부화시켜 연중 사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메뚜기가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부화온도(28℃) 등 최적의 조건도 밝혀냈다. /오광록기자 kroh@

本社人事

▲大成洙:중부취재본부 영암주재 차장
▲李振澤(동부취재본부 구례주재):의원면직 (6월4일자)

사람을 찾습니다!

정환아!
할머니가 애타게 기다린다.
속히 집으로 돌아오거라



성명 : 강정환
나이 : 28세
현재,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위 사람을 본적이나 행적을 아시는 분은 급히 연락바랍니다. 후사 하겠습니다.

연락처 062)222-4476 062)232-2991~2

스마트폰 비즈니스를 선도 할 전국지사 / 대리점 및 딜러 모집

- 모든 기술 제반 본사 지원!
- 영업/마케팅을 통한 확실한 수익보장!
- 개인/기업 누구나 참여 가능!

더 가온의 서비스란?

▶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명함을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 명함

▶ 오프라인의 출입카드를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출입카드

▶ 강력한 스마트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스마트폰 서비스

<특허출원> 10-2013-0019348

" 당신의 성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

The Gaon
주식회사 더 가온
☎ 02)6925-2558/ 010-8794-7609
www.thegaon.co.kr

여성가족부 인정

2013년도 야간방학반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 신분증 사본
④ 사진 2매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